

# 나주 혁신도시 14개 기관 정원 765명 줄인다

## ■ 나주 혁신도시 14개 기관 정원 감축안

(단위:명)

기관명	감축인원	조정 후 정원
합계	765	48083.5
한국전력공사	260	23468
한국농어촌공사	191	6160
한전MCS	172	4801
한전KPS	62	6650
한전KDN	21	296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871
한국전력거래소	18	543
한국콘텐츠진흥원	11	517
한국인터넷진흥원	5	77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25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2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16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	545.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100

(고용진 의원실 제공)

한전 260명·농어촌공사 191명 등...KCA·농기평 감축인원 0명  
한전MCS '디지털 변환'에 현장직 감축...하위직 중심 일자리 줄여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주면에 따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4개 이전기관은 내년까지 정원을 7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각 기관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담겼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시간 단위 근무 계약 포함)을 감축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공기업 14곳은 정원을 765명 감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체 감축분의 11.4%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혁신도시 기관들의 인력 감축안이 확정되면 현재 4만8848.5명인 정원은 내년까지 4만8083.5명으로 줄게 된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다. 한전은 정원을 260명 줄

일 계획으로, 조정 후 정원은 2만3468명이 된다. 한전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191명), 한전MCS(172명), 한전KPS(62명), 한전KDN(21명), 한국전력거래소(1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18명), 한국콘텐츠진흥원(11명), 한국인터넷진흥원(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4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2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1명) 등 순으로 감축분이 많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조정분을 각각 27명과 1명 내놓았지만, 국정 과제 등을 위한 고유사업에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분은 '0명'이 됐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줄게 되는 한전은 기능조정으로 인한 감축분 83명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감축분 415명을 제시했다. 한전은 해외 석탄 화력 등 사업을 축소하고 검침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자회사인 한전MCS에 이관하면서 인력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단 변전소 준공과 해외 신규 사업 등을 위한 인력 238명을 재배치하면서 정원 감축분은 260명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간접 사업 인력 22명을 줄이는 등 총 10개 기능을 폐지·축소하면서 인력 144명을 감축하고 지사 인력을 47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장에서 전력서비스를 벌이는 한전의 자회사 한전MCS는 핵심기능은 유지하되 '디지털 변환'으로 인한 기능 축소를 인력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력서비스 현장 인력 143명(4급)이 내년 말까지 감축된다. 또 본사 부서를 통합하고 사업소를 광역 사업장으로 만들며 29명을 줄인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한전 정원 조정안을 직급별로 보면 1급은 1명(0.4%), 2급 14명(5.4%), 3급 4명(1.5%) 등 1~3급 감축 인원은 7.3% 비중을 불과했다. 그밖에 4급 15명(5.8%) 등 4급 이하(무기 계약 포함) 비중은 92.7%(241명)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1~2급 감축 인원은 2명(1.0%), 3급은 59명(30.9%)에 불과하지만 4~5급은 108명(56.5%), 7급은 22명(11.5%)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 때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예비창업가 혁신조달 설명회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 24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조달정책 설명회를 열고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성공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출 방안을 안내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 농어촌공사, 꿀벌 귀환 캠페인

밀원수 400그루 심기

나주에 '꿀벌 쉼터' 조성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꿀벌 실종피해의 70%가 몰린 전남지역의 회복을 위해 나주에 '꿀벌 쉼터'를 조성한다. 공사는 국립나주숲체원에 '꿀벌 귀환 운동'의 하나로 지난 24일 기념 식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와 사단법인 평화의숲은 지난달부터 모금 활동(크라우드 펀딩)을 벌이고 기부금을 더

해 재원을 마련했다. 소셜미디어 인증을 한 모금 참가자 100명을 뽑아 '꿀 상품'을 주며 참여를 독려했기도 했다. 오는 11월까지 공사는 밀원수종 약 400그루를 나주숲체원에 심을 계획이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은 "이번 밀원수 조성은 꿀벌 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사학연금, 안심번호사 공익신고제 도입

임직원 비리 등 비실명 신고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심번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학연금 안심번호사 제도는 누구든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고 해당 사항은 ▲사학연금임직원의 부패행위 ▲임직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

법 위반행위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폭력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안심번호사를 도입하면서 신고자가 법을 전문가인 안심번호사에게 상담을 전자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신고할 내용 등을 검토해 안심번호사의 이름으로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학연금 감사실은 대리 신고를 받고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할 방침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김은경·최환주 안심번호사 2명을 위촉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했다"며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인터넷진흥원, 광주시 누리집 한글 주소 적용 돕는다

등록 수수료·기술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광주시 관내 누리집에 한글 주소(도메인)를 적용하는 작업을 돕는다. 인터넷진흥원은 25일 시청에서 광주시와 '광주시 관내 누리집 한글 도메인 적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한글 도메인은 우리말 한글을 사용하는 국제표준 인터넷주소를 말한다. 한글 표현 뒤에 '.한국'

또는 '.kr'을 붙이는 방식이다. 검색과정 없이 주소창에 한글 도메인을 입력하면 바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두 기관은 광주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누리집에 한글 도메인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광주 관내 누리집에 한글 도메인 적용을 위한 등록 수수료와 기술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누리집과 향후 제작되는 홍보 사이트

등에 한글 도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정섭 한국인터넷정보센터장은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주소·간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데이터 시대의 핵심인 정보 위치를 나타내는 국제표준화된 수단"이라며 "'한국' 도메인 이름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표현이 가능하므로 대국민 정책소통 및 참여문화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철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